

# 인생의 첫경험 호주

## 계명문화대학교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임현우

### 평범했던 삶

18 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을 가져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아는 지인분의 말로 호주 갈 생각이 있었다. 19 살 때 대학교를 어디로 갈지 고민이었다.

그러다 계명문화대학교에서 입학설명회가 있어 듣게 되었고, 듣게 되는 순간 나는 계명문화대학교로 가야겠다 라는 확신이 생겼다. 평범하게 1 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전역 후 복학을 하게 되면서 무념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다가, K-move 프로그램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다.



### 프로그램의 시작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나의 시간은 바빠졌다. 보통은 방과 후 집에서 쉬거나 친구 만났었다. 이제는 학교에 남아 영어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자신이 많이 없었다. 하지만 호주 가고 싶은 생각은 전부터 생겼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리고 교수님의 경험과 좋은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과 이별하고 필리핀의 시작은 힘들었다. 처음에 영어 시험을 칠 때, 나는 어느정도 영어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매일 단어시험을 쳐서 통과 점수를 받아야 주말 외출이 가능했다. 그래서 열심히 단어공부를 했다. 그룹수업은

딱히 말 하지않아도 수업이 흘러갔지만, 1 대 1 수업은 말을 해야 수업이 흘러가서 가기가 싫었다. 어쨌든 사전과, 바디랭귀지로 수업을 했었는데, 단어공부로 나의 영어 실력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들리지 않던 영어 단어도 들리기 시작했고, 사전도 많이 쓰지 않게 되었다. 1 대 1 수업이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짧은 필리핀의 생활은 끝나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호주로 가게 되었다. 날씨가 너무 덥고 Certificate 3 Hospitality 학위를 취득하는 수업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호주영어는 너무 듣기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 영어를 배운다는 느낌으로 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실습 120 시간을 채워야 했다. 새로운 환경과 영어로 일을 해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 커피 배우는 거는 힘들지 않았지만, 카운터에서 영어로 주문 받는게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문장을 전체를 듣는 것 보다 단어를 들어서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방법을 터득했다.



## 현재 나는..

프로그램 종료 후 나는 멜버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셰프들의 말이 잘 들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까지 영어가 들리고 이해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만약 내가 한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정말 평범한 임현우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어쩌면 나에게겐 새로운 도전과,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된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